

#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

-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

이병희 · 정성미\*

## I. 문제 제기

오랫동안 사회적인 논란을 거듭하던 비정규직보호법이 2006년 11월에 입법되어 2007년 7월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2008년 7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입법 이후 기업의 지불능력과 일자리 특성의 차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양한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규직화, 분리직군제 도입을 통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다른 한편에서는 계약해지와 파견, 용역, 도급 등을 통한 간접고용의 확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입법적 규제가 없는 외주화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호장치로서 마련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높이고,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직후에 조사된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고용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의 규모, 구성, 근로조건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근속 1년 미만으로 본 신규채용에서 비정규직 고용 변동을 분석할 것이다.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lbh@kli.re.kr).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jung@kli.re.kr).

## II.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의 변화

### 1. 총괄

2007년 8월 취업자는 23,458천 명으로 전년 8월 대비 293천 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정부의 연간 일자리 창출목표 300천 명을 하회하고 있지만, 이는 자영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8월 기준으로 1999년 8월 이래 최대인 531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는 1991년 8월 이래 최대인 520천 명이 증가하였다.

2007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703천 명으로 전년 8월보다 246천 명이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5.9%로 전년에 비해 0.4%p 증가한 것이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사상 최대인 190천 명 감소한 점이 두드러진다. 반면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는 110천 명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정규직과 유사한 근로조건을 가지는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가 90천 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평소 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가 66천 명 증가하였다. 비전형 근로자의 증가폭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일일근로자가 급증하여 179천 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용역(94천 명), 파견(44천 명) 등의 간접고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규모 증가와 구성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규모의 증가는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비정규직 증가를 가져온 가장 주요한 근로형태는 일일근로로서 기업의 요청 또는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불규칙한 근로형태(on-call worker)로 정의된다<sup>1)</sup>. 일일근로의 과반수가 종사하는 건설업에서 98천 명의 일일근로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일일근로의 증가에는 건설업의 고용 상황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과는 크게 관련없다고 생각되는 일일근로를 제외하고 비정규직의 규모를 산출하면, 전년 8월에 비해 133천 명 증가하였지만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0.3%p 감소하였다. 이하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 변화가 어떤 부문에서 주로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건설일용근로자,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사, 퀵서비스 종사자, 행사도우미,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 아르바이트 사원 등이 해당된다.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천 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A)	2007 (B)	증감 (B-A)
임금근로자	14,030 [100.0]	14,149 [100.0]	14,584 [100.0]	14,968 [100.0]	15,351 [100.0]	15,882 [100.0]	531
정규직	10,190 [72.6]	9,542 [67.4]	9,190 [63.0]	9,486 [63.4]	9,894 [64.5]	10,180 [64.1]	285 [-0.4p]
비정규직	3,839 [27.4]	4,606 [32.6]	5,394 [37.0]	5,483 [36.6]	5,457 [35.5]	5,703 [35.9]	246 [ 0.4p]
한시적 근로	2,063 (53.7)	3,013 (65.4)	3,597 (66.7)	3,615 (65.9)	3,626 (66.5)	3,546 (62.2)	-80 ( 4.3)
기간제	1,536 (40.0)	2,403 (52.2)	2,491 (46.2)	2,728 (49.8)	2,722 (49.9)	2,531 (44.4)	-190 ( 5.5)
계약 반복갱신	281 ( 7.3)	248 ( 5.4)	580 (10.8)	302 ( 5.5)	465 ( 8.5)	555 ( 9.7)	90 (-1.2)
계속근무 기대불가	247 ( 6.4)	362 ( 7.9)	526 ( 9.7)	585 (10.7)	439 ( 8.1)	460 ( 8.1)	20 ( 0.0)
시간제 근로	807 (21.0)	929 (20.2)	1,072 (19.9)	1,044 (19.0)	1,135 (20.8)	1,201 (21.1)	66 (-0.3)
비전형근로	1,742 (45.4)	1,678 (36.4)	1,948 (36.1)	1,907 (34.8)	1,933 (35.4)	2,208 (38.7)	275 (-3.3)
파견	94 ( 2.4)	98 ( 2.1)	117 ( 2.2)	118 ( 2.1)	131 ( 2.4)	174 ( 3.1)	44 (-0.7)
용역	332 ( 8.6)	346 ( 7.5)	413 ( 7.7)	431 ( 7.9)	499 ( 9.1)	593 (10.4)	94 (-1.3)
특수근로형태	772 (20.1)	600 (13.0)	711 (13.2)	633 (11.5)	617 (11.3)	635 (11.1)	18 ( 0.2)
가정내	235 ( 6.1)	166 ( 3.6)	171 ( 3.2)	141 ( 2.6)	175 ( 3.2)	125 ( 2.2)	-50 ( 1.0)
일일	412 (10.7)	589 (12.8)	666 (12.3)	718 (13.1)	667 (12.2)	845 (14.8)	179 (-2.6)

주: [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 )안은 비정규직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 2.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변화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규모 및 구성 변화를 제시한 <표 2>를 보면,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 변화는 10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법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이 11천 명 감소하였고, 정규직이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천 명, %)

	2006			2007			증 감		
	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근로자	11,950.7 [100.0]	1,560.4 [100.0]	1,839.9 [100.0]	12,513.4 [100.0]	1,535.4 [100.0]	1,833.4 [100.0]	562.7	-24.9	-6.6
정규직	7,295.0 [61.0]	1,128.2 [72.3]	1,471.2 [80.0]	7,612.3 [60.8]	1,091.5 [71.1]	1,475.8 [80.5]	317.3 [-0.2]	-36.7 [-1.2]	4.6 [ 0.5]
비정규직	4,655.7 [39.0]	432.1 [27.7]	368.7 [20.0]	4,901.1 [39.2]	443.9 [28.9]	357.6 [19.5]	245.4 [ 0.2]	11.8 [ 1.2]	-11.2 [-0.5]
한시적 근로	2,938.8 (63.1)	353.2 (81.7)	334.4 (90.7)	2,838.3 (57.9)	383.0 (86.3)	325.0 (90.9)	-100.5 (-5.2)	29.8 ( 4.5)	-9.3 ( 0.2)
기간제	2,191.8 (47.1)	276.5 (64.0)	253.2 (68.7)	1,994.7 (40.7)	285.4 (64.3)	251.1 (70.2)	-197.1 (-6.4)	8.9 ( 0.3)	-2.1 ( 1.6)
계약 반복갱신	334.0 ( 7.2)	60.7 (14.0)	70.7 (19.2)	405.6 ( 8.3)	79.2 (17.8)	70.5 (19.7)	71.5 ( 1.1)	18.5 ( 3.8)	-0.2 ( 0.5)
계속근무 기대불가	412.9 ( 8.9)	16.0 ( 3.7)	10.4 ( 2.8)	438.0 ( 8.9)	18.4 ( 4.1)	3.5 ( 1.0)	25.1 ( 0.1)	2.4 ( 0.4)	-7.0 (-1.9)
시간제 근로	1,065.4 (22.9)	36.3 ( 8.4)	33.4 ( 9.0)	1,133.4 (23.1)	37.7 ( 8.5)	30.3 ( 8.5)	68.0 ( 0.2)	1.4 ( 0.1)	-3.0 (-0.6)
비전형근로	1,784.0 (38.3)	105.0 (24.3)	44.1 (12.0)	2,077.9 (42.4)	88.8 (20.0)	41.7 (11.7)	293.9 ( 4.1)	-16.2 (-4.3)	-2.4 (-0.3)
파견	104.6 ( 2.2)	19.6 ( 4.5)	6.5 ( 1.8)	148.8 ( 3.0)	15.0 ( 3.4)	10.4 ( 2.9)	44.2 ( 0.8)	-4.6 (-1.2)	4.0 ( 1.2)
용역	442.0 ( 9.5)	38.3 ( 8.9)	18.2 ( 4.9)	542.2 (11.1)	38.0 ( 8.6)	12.7 ( 3.5)	100.2 ( 1.6)	-0.2 (-0.3)	-5.5 (-1.4)
특수근로형태	564.7 (12.1)	36.3 ( 8.4)	16.0 ( 4.3)	592.9 (12.1)	28.8 ( 6.5)	13.3 ( 3.7)	28.2 ( 0.0)	-7.5 (-1.9)	-2.6 (-0.6)
가정내	171.3 ( 3.7)	3.0 ( 0.7)	0.8 ( 0.2)	122.5 ( 2.5)	0.6 ( 0.1)	1.8 ( 0.5)	-48.8 (-1.2)	-2.4 (-0.6)	0.9 ( 0.3)
일일	655.2 (14.1)	8.2 ( 1.9)	3.1 ( 0.8)	834.0 (17.0)	7.7 ( 1.7)	3.5 ( 1.0)	178.8 ( 2.9)	-0.6 (-0.2)	0.4 ( 0.1)

주: [ ]안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 )안은 비정규직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5천 명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구성 또한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100인 미만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245천 명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기간제 근로는 197천 명 감소하였으며, 일일근로 179천 명, 용역근로 100천 명,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 72천명, 시간제 근로 68천명, 파견근로 44천명 등이 증가하였다.

### 3. 근속연수별 비정규직의 변화

<표 3>에는 근속연수별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비가 제시되어 있다. 1년 미만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을 통해 신규 채용시 근로형태별 활용도를 추론할 수 있다. 단, 취업한 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누락되는 한계가 있으며, 근속연수가 짧은 고용형태는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함에 따라 신규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1년 미만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구성비중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를 추론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신규로 취업한 정규직은 전년 8월과 비교하여 55천 명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은 34천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신규로 취업한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8월 52.0%에서 2007년 8월 52.7%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구성을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기간제 근로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일일근로, 용역근로, 파견근로 등의 비전형근로 및 시간제 근로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 구성의 변화는 기간제 채용의 감소라는 채용관행의 변화, 건설 일일근로의 증가와 같은 경기적 요인, 외주화에 따른 용역·파견근로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를 추론해 보면, 전년 8월과 비교하여 근속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340천 명) 증가 규모가 비정규직(149천 명)을 상회한다. 비정규직의 구성을 보면, 계약의 반복

<표 3> 근속연수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단위: 천 명, %)

	1년 미만			1년 이상		
	2006	2007	증감	2006	2007	증감
임금근로자	6,119.9 (100.0)	6,099.2 (100.0)	-20.8	9,231.0 (100.0)	9,783.0 (100.0)	552.0
정규직	2,938.2 ( 48.0)	2,883.3 ( 47.3)	-54.9	6,956.2 ( 75.4)	7,296.3 ( 74.6)	340.1
비정규직	3,181.7 ( 52.0)	3,215.8 ( 52.7)	34.1	2,274.9 ( 24.6)	2,486.8 ( 25.4)	211.9
한시적 근로	1,950.8 ( 31.9)	1,721.3 ( 28.2)	-229.5	1,675.6 ( 18.2)	1,825.0 ( 18.7)	149.4
기간제	1,540.0 ( 25.2)	1,291.1 ( 21.2)	-248.9	1,181.6 ( 12.8)	1,240.2 ( 12.7)	58.6
계약 반복갱신	116.3 ( 1.9)	122.8 ( 2.0)	6.5	349.1 ( 3.8)	432.4 ( 4.4)	83.3
계속근무 기대불가	294.5 ( 4.8)	307.4 ( 5.0)	12.9	144.9 ( 1.6)	152.4 ( 1.6)	7.6
시간제 근로	843.3 ( 13.8)	911.6 ( 14.9)	68.3	291.8 ( 3.2)	289.8 ( 3.0)	-2.0
비전형근로	1,242.1 ( 20.3)	1,417.6 ( 23.2)	175.5	691.0 ( 7.5)	790.8 ( 8.1)	99.8
파견	67.7 ( 1.1)	82.4 ( 1.4)	14.8	63.1 ( 0.7)	91.9 ( 0.9)	28.9
용역	256.2 ( 4.2)	284.5 ( 4.7)	28.4	242.3 ( 2.6)	308.4 ( 3.2)	66.1
특수근로형태	289.5 ( 4.7)	286.2 ( 4.7)	-3.3	327.5 ( 3.5)	348.9 ( 3.6)	21.3
가정내	118.9 ( 1.9)	92.2 ( 1.5)	-26.7	56.3 ( 0.6)	32.6 ( 0.3)	-23.6
일일	647.8 ( 10.6)	822.5 ( 13.5)	174.7	18.7 ( 0.2)	22.7 ( 0.2)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의 증가(68천 명)가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졌으며, 용역근로(66.1천 명), 기간제 근로(58.6천 명), 파견근로(28.9천 명), 특수근로형태(21.3천 명)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의 증가와 함께 용역·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 Ⅲ.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변화

#### 1. 한시적 근로

2004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한시적 근로는 2005~2006년 소폭 증가(2005년 18천 명 증가, 2006년 12천 명 증가)하다가 2007년 80천 명 감소하였다. 한시적 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등의 비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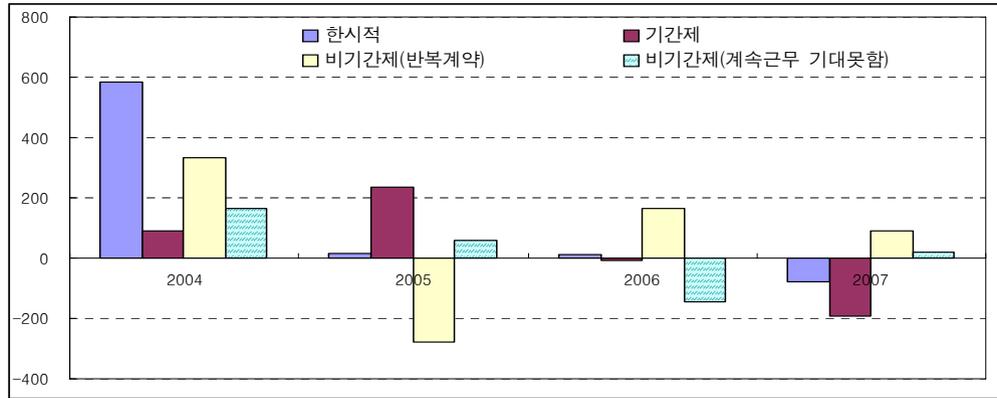
2005년 8월에는 기간제 근로자 중심으로 한시적 근로자가 증가하였으나 2006년 8월에는 기간제와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의 규모 변동이 크지 않았다. 2007년 8월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190천 명)하였으며, 반면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기간제 근로의 감소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현저하게 나타나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 2006년 18.3%에서 2007년 15.9%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 및 비중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신규 채용시 기간제 근로형태의 채용이 249천 명이 감소하여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신규 입사자의 비중이 56.6%에서 51.0%로 감소하였다. 또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25.2%에서 2007년 21.2%로 감소하였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840천 명에 이르며 기간제 근로자의 33.2%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보인다.

2) 사업체 규모별·근속연수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변화를 보면, 신규 취업 비정규직의 구성 변화와 1년 이상 근속자의 근로형태 변화도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그림 1] 한시적 근로자의 구성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표 4] 특성별 기간제 고용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체		2,402.8	2,491.2	2,727.6	2,721.6	2,531.3
사업체	100인 미만 (비중)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2,008.4 (83.6) (18.3)	2,015.7 (80.9) (17.9)	2,162.6 (79.3) (18.7)	2,191.8 (80.5) (18.3)	1,994.7 (78.8) (15.9)
	100~299인 (비중)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196.8 ( 8.2) (14.2)	245.6 ( 9.9) (16.5)	296.7 (10.9) (20.0)	276.5 (10.2) (17.7)	285.4 (11.3) (18.6)
	300인 이상 (비중)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197.6 ( 8.2) (11.1)	223.0 ( 9.2) (12.7)	268.3 ( 9.8) (14.1)	253.2 ( 9.3) (13.8)	251.1 ( 9.9) (13.7)
근속연수별	1년 미만 (비중) (임금근로자 중 비중)	1,611.7 (67.1) (27.8)	1,453.9 (58.4) (25.3)	1,536.8 (56.3) (26.1)	1,540.0 (56.6) (25.2)	1,291.1 (51.0) (21.2)
	1년 이상~2년 미만 (비중) (임금근로자 중 비중)	291.4 (12.1) (15.5)	385.5 (15.5) (17.3)	374.7 (13.7) (18.4)	382.5 (14.1) (18.1)	399.8 (15.8) (17.2)
	2년 이상~3년 (비중) (임금근로자 중 비중)	134.5 ( 5.6) (13.4)	193.2 ( 7.8) (16.2)	246.4 ( 9.0) (18.2)	211.6 ( 7.8) (17.3)	208.5 ( 8.2) (15.8)
	3년 초과 (비중) (임금근로자 중 비중)	365.2 (15.2) ( 6.7)	458.6 (18.4) ( 8.5)	569.6 (20.9) (10.0)	587.5 (21.6) (10.0)	631.9 (25.0) (1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표 5〉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의 추이

(단위: 천 명)

		계약의 반복갱신 비기간제			계속근무 기대 불가능		
		2006	2007	(증감)	2006	2007	(증감)
전 체		465.4	555.2	(89.8)	439.4	459.9	(20.5)
근 속 연수별	1년 미만	116.3	122.8	( 6.5)	294.5	307.4	(12.9)
	1~2년	68.3	102.8	(34.6)	75.4	83.4	( 8.0)
	2~3년	45.5	73.9	(28.4)	26.9	32.3	( 5.4)
	3년 이상	235.3	255.7	(20.4)	42.7	36.7	(-6.0)
사업체 규모별	1~99인	334.0	405.6	(71.5)	412.9	438.0	(25.1)
	100~299인	60.7	79.2	(18.5)	16.0	18.4	( 2.4)
	300인 이상	70.7	70.5	(-0.2)	10.4	3.5	(-6.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표 5〉의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으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근로형태이다.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비슷하며(정규직의 98% 수준), 사회보험 가입률·기업복지 수혜율 등이 정규직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는 2006년 8월에 비해 90천 명이 증가하였다.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의 증가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신규 채용시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형태의 채용이 증가하거나 둘째, 재직하는 비정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하여 이러한 근로형태에 응답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근속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소폭 증가에 그치는 반면, 근속 1년 이상인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자연 퇴직을 감안할 경우 기존의 비정규 근로형태가 전환하거나 고용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가 증가하였다.

## 2. 용역근로

용역근로는 파견근로와 달리 고용사업주의 지위감독을 받으면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용역근로는 첫째, 청소·용역 등의 서비스 용역, 둘째, 제조업에서 사내 하도급, 셋째, 유통, 호텔, 정보통신 등의 비제조업에서 서비스 용역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청소·경비 등 직무의 특성에 따른 용역근로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외주화에 따른 용역근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용역근로자가

<표 6> 용역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산업과 직업 구성(2007. 8)

(단위: 천 명)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직원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숙 련근로자	기능기계 조작조립	단순 노무직	전 체
농림어광업	0.4	0.9	1.0	0.4	0.8	9.2	12.7
제조업	0.9	5.3	7.7	0.0	42.5	60.1	116.4
전기가스수도업	0.0	1.5	0.0	0.0	1.0	3.2	5.7
건설업	0.0	0.3	0.0	0.0	12.7	35.8	48.8
도소매업	0.5	6.9	15.1	0.0	5.4	19.2	47.1
음식숙박업	0.0	0.6	3.3	0.0	4.3	7.3	15.4
운수업	0.0	2.0	0.5	0.0	4.5	23.4	30.3
통신업	0.6	1.3	1.2	0.0	0.3	3.2	6.6
금융 및 보험업	0.8	3.1	9.3	0.0	1.5	8.4	23.0
부동산 및 임대업	4.0	1.7	0.0	0.0	8.9	148.0	162.6
사업서비스업	0.5	1.3	0.8	0.0	1.5	12.9	17.0
공공행정	0.3	1.9	0.0	0.0	2.2	11.2	15.6
교육서비스업	3.0	0.0	4.5	0.0	2.7	20.1	30.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5.0	9.0	0.0	0.4	15.6	31.1
오락문화	0.9	0.0	4.9	0.9	0.9	13.6	21.2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1.5	0.0	0.0	0.0	1.3	5.8	8.5
가사서비스업	0.0	0.0	0.0	0.0	0.0	0.6	0.6
전 체	14.6	31.8	57.1	1.3	90.8	397.4	59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7년 8월.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의 산업과 직업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용역근로는 94천 명 증가하였는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46천 명,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 20천 명, 서비스판매직 12천 명, 사무직 10천 명이 증가하였다. 단순노무직의 상당수는 청소·경비 등 외주화와 관련 없는 서비스 용역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의 기능원 및 기계조작원 43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무직·서비스판매직 41천 명은 외주화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3. 파견근로

파견근로는 44천 명 증가하여 2002년 이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44천 명이 증가하여 파견근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21천 명 증가), 제조업(8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7천 명), 소매업(6천 명) 등 일부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16천 명), 사무직(11천 명), 서비스판매직(14천 명)이 증

3) 2006년 8월 부가조사 자료에서는 일하는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부정확하여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파악할 수 없었다.

〈표 7〉 특성별 파견근로의 고용규모 추이

(단위: 천 명)

		2004		2005		2006		2007	
		규모	증감	규모	증감	규모	증감	규모	증감
전 체		116.8	(18.9)	117.7	( 0.9)	130.7	(13.0)	174.3	(43.6)
사업체 규모별	1~99인	99.2	(17.8)	96.8	(-2.4)	104.6	( 7.8)	148.8	(44.2)
	100~299인	11.6	( 0.0)	9.5	(-2.1)	19.6	(10.1)	15.0	(-4.6)
	300인 이상	6.2	( 1.2)	11.5	( 5.3)	6.5	(-5.0)	10.4	( 3.9)
근 속 연수별	1년 미만	56.1	( 6.7)	51.9	(-4.2)	67.7	(15.8)	82.4	(14.7)
	1년 이상~2년 미만	22.6	( 5.3)	18.2	(-4.4)	23.8	( 5.6)	32.7	( 8.9)
	2년 이상~3년 미만	11.2	(-1.1)	11.5	( 0.3)	9.0	(-2.5)	16.1	( 7.1)
	3년 이상	26.9	( 8.0)	36.2	( 9.3)	30.3	(-5.9)	43.1	(12.8)
직업별	고위직	1.0	( 0.1)	1.2	( 0.2)	0.0	(-1.2)	1.0	( 1.0)
	전문가	3.4	(-0.8)	13.8	(10.4)	7.7	(-6.1)	10.5	( 2.8)
	준전문가	11.0	( 6.4)	5.8	(-5.2)	7.7	( 1.8)	20.3	(12.6)
	사무종사	11.3	( 3.7)	14.2	( 2.9)	7.5	(-6.7)	18.1	(10.6)
	서비스종사	10.8	( 1.5)	12.6	( 1.8)	14.3	( 1.8)	19.6	( 5.3)
	판매종사	32.3	(-5.2)	35.1	( 2.8)	31.1	(-3.9)	39.5	( 8.4)
	숙련	0.4	( 0.4)	0.4	( 0.0)	0.0	(-0.4)	0.0	( 0.0)
	기능원	20.4	(10.2)	9.6	(-10.9)	17.8	( 8.2)	14.8	(-2.9)
	조작조립	6.0	(-2.3)	7.4	( 1.4)	11.4	( 4.0)	13.7	( 2.3)
단순노무	20.2	( 5.1)	17.6	(-2.6)	33.3	(15.7)	36.7	( 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가한 반면, 생산관련직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 IV. 근로조건

### 1. 임금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 8월에 비해 6.5% 증가하여 정규직의 임금증가를 5.3%를 상회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2006년 62.8%에 비해 2007년 63.5%로 그 격차가 소폭 축소되었다. 기간제 근로(9.8%),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 근무가 기대되는 자(9.9%), 파견근로(6.4%), 용역근로(9.7%), 특수근로형태(7.6%)의 임금상승률이 정규직을 상회한 반면, 가정내 근로(-4.7%),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0.7%)는 임금이 하락하였다.

정규직과 비교한 상대 임금수준을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표 8〉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6~8월 평균)

(단위 : 천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임금근로자	1466.4	1542.3	1593.3	1655.8	1745.5
정규직	1678.0 (100.0)	1771.4 (100.0)	1845.7 (100.0)	1908.2 (100.0)	2008.5 (100.0)
비정규직	1028.1 ( 61.3)	1151.8 ( 65.0)	1156.4 ( 62.7)	1198.2 ( 62.8)	1276.0 ( 63.5)
한시적 근로	1092.4 ( 65.1)	1231.7 ( 69.5)	1240.3 ( 67.2)	1313.0 ( 68.8)	1440.3 ( 71.7)
기간제	1082.3 ( 64.5)	1187.4 ( 67.0)	1258.2 ( 68.2)	1292.6 ( 67.7)	1418.8 ( 70.6)
계약 반복갱신	1478.3 ( 88.1)	1704.3 ( 96.2)	1692.3 ( 91.7)	1774.1 ( 93.0)	1949.0 ( 97.0)
계속근무 기대불가	895.6 ( 53.4)	920.0 ( 51.9)	924.0 ( 50.1)	951.0 ( 49.8)	944.7 ( 47.0)
시간제 근로	499.4 ( 29.8)	539.0 ( 30.4)	522.3 ( 28.3)	550.6 ( 28.9)	560.9 ( 27.9)
비전형근로	976.4 ( 58.2)	1067.5 ( 60.3)	1080.6 ( 58.5)	1045.8 ( 54.8)	1111.9 ( 55.4)
파견	1104.0 ( 65.8)	1271.5 ( 71.8)	1316.0 ( 71.3)	1260.8 ( 66.1)	1341.3 ( 66.8)
용역	870.7 ( 51.9)	922.4 ( 52.1)	948.1 ( 51.4)	932.9 ( 48.9)	1023.5 ( 51.0)
특수근로형태	1271.9 ( 75.8)	1390.5 ( 78.5)	1422.4 ( 77.1)	1321.9 ( 69.3)	1421.8 ( 70.8)
가정내	412.0 ( 24.6)	563.7 ( 31.8)	566.8 ( 30.7)	596.4 ( 31.3)	568.4 ( 28.3)
일일	805.5 ( 48.0)	836.6 ( 47.2)	859.5 ( 46.6)	872.9 ( 45.7)	891.8 ( 4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한시적 근로자는 정규직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비슷한 수준(97.0%)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근로형태(70.8%), 기간제 근로(70.6%), 파견근로(66.8%)가 비정규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용역근로(51.0%),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47.0%), 일일근로(44.4%), 가정내 근로(28.3%), 시간제 근로(27.9%)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월평균 임금격차의 축소는 오히려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 진행되었다(표 9 참조).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6.6%를 기록하여 정규직 4.7%에 비해 높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2006년 69.3%에 비해 2007년 73.0%로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100~299인 사업체에서는 정규직 6.7%에 비해 비정규직이 높은 임금상승률 10.8%를 기록하여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2006년 72.0%에서 2007년 74.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6.0%)이 정규직(8.1%)을 하회하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6년 76.0%에서 2007년 74.5%로 오히려 감소했다.

## 2. 근로복지

지역 가입자를 제외하고서 사업장 가입자만 고려할 경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8월에 비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p, 건강보험 2.5%p, 고용보험 2.9%p 증가하였다.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표 9〉 사업체 규모별·근로형태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수준 추이(6~8월 평균, 정규직=100)

(단위 : %)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근로	가정내	일일
		기간제	계약반복갱신	계속근무기대불가	기간제	계약반복갱신							
2006	1~99인	64.4	69.3	67.9	95.4	55.5	31.9	60.0	69.4	53.4	76.8	34.2	51.1
	100~299인	72.0	75.0	75.2	80.7	50.7	33.6	58.8	70.1	50.8	63.1	62.3	46.7
	300인 이상	76.0	78.9	77.1	91.6	36.8	24.0	55.8	63.8	44.0	66.0	35.5	55.1
	전체	62.8	68.8	67.7	93.0	49.8	28.9	54.8	66.1	48.9	69.3	31.3	45.7
2007	1~99인	65.6	73.0	72.4	97.6	53.1	31.2	61.2	72.1	56.7	77.8	31.9	50.4
	100~299인	74.8	75.2	73.5	89.2	41.8	30.6	68.1	78.1	50.4	96.6	20.5	27.2
	300인 이상	74.5	78.0	71.7	102.6	29.1	20.0	42.4	50.2	41.5	45.3	22.7	21.3
	전체	63.5	71.7	70.6	97.0	47.0	27.9	55.4	66.8	51.0	70.8	28.3	4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가입률은 기간제 근로 8.0%p, 용역근로 7.1%p,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 근무가 기대되는 한시적 근로 4.1%p, 파견근로 2.8%p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기업복지 수혜율 또한 모두 증가하였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기업복지 수혜율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난다. 유급휴가 5.6%p, 퇴직금 4.5%p, 상여금 3.5%p,

〈표 10〉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기업복지 수혜율

(단위 :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임금근로자	62.6	63.2	63.2	64.4	54.6	55.3	54.6	57.5	53.3	55.9	42.4	43.3	43.7	49.8
정규직	76.1	76.3	76.1	76.7	64.7	64.3	67.9	70.3	67.5	69.8	53.9	54.2	55.0	61.7
비정규직	38.2	40.0	40.0	42.5	36.3	39.2	30.3	34.8	27.7	31.1	21.5	23.8	23.1	28.7
한시적 근로	51.4	57.2	53.2	60.0	49.0	55.5	41.7	50.1	38.4	44.8	29.6	34.3	31.9	41.9
기간제	51.7	59.3	53.8	62.7	49.7	57.6	43.0	52.9	38.5	46.0	29.4	35.1	32.8	44.7
계약 반복 갱신	82.6	83.5	84.0	84.6	77.2	81.2	70.5	75.7	69.2	72.4	53.7	55.9	51.7	61.2
계속근무 기대불가	16.6	13.5	16.8	15.8	15.5	12.7	3.1	3.9	5.3	5.0	5.4	3.9	4.8	3.2
시간제 근로	3.2	3.3	3.8	4.0	3.2	3.7	1.6	1.9	2.0	3.1	2.4	2.3	2.1	2.3
비전형근로	22.0	23.0	25.4	27.7	20.8	23.9	16.2	20.6	12.6	15.6	9.6	12.3	10.8	14.2
파견	66.5	66.2	66.3	67.4	65.1	67.9	50.9	58.6	40.6	48.3	35.9	42.2	38.9	45.3
용역	53.7	55.5	67.4	73.1	52.5	59.6	47.2	55.4	34.1	38.0	25.5	30.2	28.8	35.6
특수근로형태	10.0	9.1	9.7	8.7	7.7	7.9	1.6	3.4	2.3	4.7	0.9	1.7	2.1	3.5
가정내	2.1	1.3	1.3	1.3	1.3	1.3	1.0	0.4	1.7	0.4	1.0	0.0	0.4	0.4
일일	0.7	0.5	1.0	0.8	0.7	0.7	0.1	0.3	0.5	0.8	1.1	1.3	0.0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시간외수당 2.3%p 증가하였다. 근로형태별로는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 V. 맺음말

2007년 8월에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비정규직의 고용 변동이 어떤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강화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는 1998년 8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급증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보다는 그 구성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는 건설일용근로를 포함하는 일일근로의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구성이 크게 변화하였다. 기간제 근로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가 증가하였으며, 용역·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이 증가하였고, 특수근로형태, 시간제 근로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 구성의 변화는 주로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하였다.

넷째, 근로형태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의 감소는 주로 신규 채용시 기간제 근로형태로의 채용이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는 1년 이상 근속한 계층에서 증가하여 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근로형태로 일부가 전환하거나 고용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은 신규 채용시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근속한 계층에서도 증가하였다. 용역근로는 단순노무직, 파견근로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등에 의해 증가하였으며, 그 일부가 외주화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법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임금근로의 규모나 구성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비정규직법의 영향은 본 조사결과에서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복지 수혜율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법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임금개선은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복지 수혜율 등의 비금전적인 근로조건은 개선되었다.

이번 부가조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1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되었고, 기간제의 최대 사용기간 2년 제한이 2009년이나 작동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반응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합리한 원하도 급관계 문제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조사에서 간접고용의 증가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KLI**